

최연의 산 이야기 <9> 가야산 1



철암이 보이는 곳이 용의머리인 가야산 원효봉이고 맨 끝에 봉긋이 솟은 봉우리가 여의주인 덕숭산이다.

옹골찬 기운이 의인을 많이 배출하였구나

가야산(伽倻山)은 금북정맥(金北正脈)이 높낮이를 달리 하며 산줄기를 이어오다가 서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남은 기운을 한껏 펼쳐서 솟아오른 봉우리이다.

백두대간 상의 속리산(俗離山)에서 갈라져 나와 보은의 말티고개, 선도산(仙到山), 청주의 상당산성(上黨山城), 좌구산(座龜山), 음성의 보현산(普賢山), 안성의 칠현산(七賢山)까지의 산줄기는 한강과 금강을 나누는 분수령(分水嶺)으로서 한강의 남쪽 산줄기(漢南正脈)와 금강의 북쪽 산줄기(金北正脈)의 겹친 산줄기다.

그러므로 금북정맥은 한남정맥과 나란히 북쪽으로 향하다가 안성 칠현산에서 한남정맥과 이별하고 다시 서남쪽으로 방향을 잡아 안성의 서운산을 지나 충청도 땅으로 들어서는 데 천안의 흑성산(黑城山)과 국사봉(國師峰)을 지나 광덕산과 차유령(車踰嶺)으로 이어진다. 계속해서 청양의 국사봉을 지나 일월산(日月山)까지 내려온다. 다시 서쪽으로 잡아 태안반도의 골격인 성왕산(聖王山), 백화산(白華山)을 나지막히 이루고 드디어 안흥진에서 서해로 숨어들며 산줄기의 흐름을 멈춘다. 다시 말해서 금북정맥은 금강 북쪽의 충남 땅에 솟아오른 산줄기를 말한다.

금북정맥은 우리나라 산줄기 중에서 한남정맥(漢南正脈) 다음으로 낮은 산줄기로 그 산줄기에서 가장 높은 산

이 오서산인데 높이가 790m이다. 광덕산 699m, 가야산 678m, 무성산 612m로 600m가 넘는 산이 고작 넷뿐이다.

금북정맥은 비록 높지는 않으나 낮게 얼드렸다가 불쑥 솟아오르기를 되풀이하며 구불구불 힘차게 뻗어가는 모양이 웅트립하며 날아가는 용의 형상을 닮았다. 또한 금북정맥의 봉우리들은 거의가 부드럽고 온화할 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다양하여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산줄기의 자태도 유장(悠長)하여 불결처럼 유유히 길게 뻗어 있어 잔잔하게 출렁이는 산줄기처럼 울동감을 느끼게 한다.

가야산은 금북정맥 중에서 제일 높지는 않으나 매우 웅장하고 높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평야지대에 우뚝 솟아올랐기 때문이다. 가야산은 주맥(主脈)이 30여 리에 뻗어 있는 유장한 산세를 자랑하며 용(龍)이 남쪽을 향해 누워 있는 형상으로 동쪽엔 당진평야를 서쪽엔 예산평야를 넓게 부러 놓고 있다. 가야산이 부러놓은 비산비야(非山非野)의 넓은 들판에는 예산·서산·홍성·태안·당진 등의 고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를 내포(內浦)라고 했는데, 지금도 예산·당진평야를 그냥 줄여서 예당평이라고 하지만 달리 내포평이라고도 한다.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는 내포 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산천은 평탄하며 아름답고 서울의 남쪽에 있어 서울의 세력 있는 집안은 대부분 이곳에 농토와 집을 두고 근거지로 삼고 있다. (중략) 충청도에선 내포가 제일 좋은 곳이다.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00리 쯤 되는 곳에 가야산

이 있다. 서쪽은 큰 바다이고 북쪽은 경기도 바다가 고을과 만(灣)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는데 곧 서해가 솟 들어온 곳이다. 동쪽은 큰 들판이고 들 가운데에 큰 포구가 하나 있다. 남쪽은 오서산이 막아 다만 동남쪽으로 공주와 통할 뿐이고 오서산은 가야산에서 온 산맥이다. 가야산의 앞뒤에 있는 열 고을을 내포라 한다. 지세가 한 모퉁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큰 길목이 아니므로 임진년과 병자년의 두 차례 난리에도 여기에는 적군이 들어오지 않았다.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다. 또 생산과 소금이 매우 흔하므로 부자가 많고 여러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가 많다."

이렇듯 내포 땅은 평야가 넓어 농산물이 풍족했으므로 아산만에서 백길로 버 구만 섬을 실어 날랐다고 해서 붙여진 구만포(九萬浦)가 있고, "예산 가서 옷 자랑 하지 말고 홍성 가서 말 잘 하는 체 하지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경제의 중심지요 지식인의 고장이었다.

그러면 땅이 평온하고 풍요로워 사람들의 정서가 부드럽고 여유 있고 친근할 것 같은데,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이곳에서 배출된 인재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의지와 절개가 굳센 사람들뿐이다. 최연 장군, 성삼문, 이순신, 추사 김정희, 의병장 최연희, 김대건 신부, 윤봉길 의사,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고암 이응로 등 목숨을 초개같이 버릴 지언정 충(忠)과 의(義)를 다한 분들이다. 아마도 높지는 않되 옹골차게 솟구친 가야산의 정기를 타고나서 외유내강의 의인(義人)이 많이 배출되었나 보다.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부르는 소리

생강나무 꽃은 피었지만 숲을 가득 채운 나무들은 아직 겨울의 차가움에서 놓여나지 못한 채 의심을 품지 않았다. 숲의 전령인 듯, 키 큰 나무들이 없는 곳에서 조팝나무 이파리들이 살짝 귀를 내밀고 봄의 소식을 듣는다.

달도 없는 밤이다.

휘이- 휘이- 휘이-

4월로 접어들면서 들려오기 시작한 울음소리가 늦도록 불이 켜진 내 방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스며든다. 어둠 속에서 어둠을 향해 한없이 울어대는 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소리. 얼음보다 차가운 기운을 간직한 채 웅크린, 움직이지 않는 밤의 한가운데를 지르며 들려오는 소리다.

저 깊은 곳 어디, 땅 속 세상의 소리다. 저 멀리, 은하수 건너, 보이지 않는 별의 소리다. 낫빛의 소리. 잠에 들지 못하는 내 가슴 속으로 '스윽 스윽' 스며든다. 밤잠들기의 울음소리도 찢어지던 밤이 홀연히 찾아온 새의 울음소리로 붉게 물들고 있다.

아무래도 무엇인가를 부르는 소리다. 가슴 속 깊이 간직한 어떤 대상을, 꼭 찾아야 할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보고 싶어, 부르자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몸부림. 그것이 아니라면 이토록 뜨겁게, 어둠조차 녹이지는 못할 것이다.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소리. 그만큼 절실한 소리다. 어둠도 밤의 사냥꾼들도, 저 소리를 어찌할 것인가?

휘이- 휘이- 휘이-

잡지도 못하고 외면하지도 못할 슬픔이다. 흐르던 피가 딱혀 '푹' 쓰러질 지언정 어찌 대답할 수 있을까? 다가갈 수 있을까?

사라진 사람들이 돌아온다. 홀로 살던 집에 사람들이 모여 노는 일이 많아 '회관 할머니'라 불리던 노인이 온다. 오토바이 사고로 방에 누워서, 어머니가 넣어주는 밥을 대어섯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살아가던 남자도 온다. 그가 죽자 딸네로 떠난 할머니도 온다. 그의 방에서 나가 흩어진 고양이들도 사람이 되어 온다. 기억대로 굶은 허리로 살다가 죽어서야 허리를 펴고 누운 할머니도 온다. 할머니를 묻고 술로 살다가 평창 어디 골 안에서 죽었다는 노인도 온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살아서인지, 아흔대 살까지 살았던 할아버지도 절뚝절뚝 천천히 걸어서 온다.

내가 이곳 산마을로 들어오던 때, 노인이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마을에 남지 않았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른다.

초중등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도 자라서 어딘가로 갔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나는 모른다.

회관 할머니가 살던 집은 이미 헐려 평평한 땅이 되었고, 허리 굽은 할머니 부부가 빌려 살던 집엔 예비역 군인이 들어왔다. 고양이들이 지키던 집은 반쯤 허물어져 이미 사람의 집이 아니다. 마을 꼭대기의 할아버지 집엔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한 아들이 아내와 함께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언뜻 마주치면 인사를 꾸벅 하고 싶은 아들이다. 죽은 할아버지가 이들의 모습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아득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산 너머 바다 건너 남쪽에서 날아온 호랑지빠귀라 했던가? 휘이- 휘이-, 잠도 자지 않고 부른다. 나의 잠을 깨우며 부른다.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붉은 울음소리로 부른다. 그리운 이들을 부른다. 만나야 할 누군가를 부른다. 마땅히 와야 할 무엇인가를 부른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부른다 아침을 맞은 새의 눈앞에, 검은 운무의 심연 속에서 '스윽' 모습을 드러내는 눈부신 새가 있다면, 밤새는 어쩔 것인가? 날개가 굳어 나무 밑으로 툭 떨어질 것인가? 밀통히 바라보며 정신을 잃을 것인가? 뜬 눈을 감지 못한 채, 그대로 나무가 될 것인가?

새벽도 멀지 않았다. 호랑지빠귀야! 이제 울지 말아라. 부르던 이가 오지 않아도 울지 말아라. 부르고 또 불러도 오지 않는 이는, 이승보다 저승이 좋은 이들일 것이다.

■유승도 (시인)

잠도 자지 않고 부른다

나의 잠을 깨우며 부른다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붉은

울음소리로 부른다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080-0766-8888

수공예 양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 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G·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 탕화 등에 침범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든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어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한불삼 / 02)2004-8216
농협 053-01-280062 (주)한불삼교문서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